2016.03.08.ICT 융합네트워크-하노버 메쎄 방문기

- 1. 김은
- ◎ administration shell 이 object를 끌어들여 제품을 생산
- ◎ 미국 IIC로 2016년 237개 회원(독일업체도 있음)
- 2. 한순홍 인더스트리 4.0 독일은 지금?
- ◎ 독일 방문 보고
  - 1) Wittenstein → 스마트공장 시연모델 운영 중(2013년부터)
  - 2) Fraunhofer → Industry 4.0 Lab
  - 3) Arcatech → 2011년부터 industry 4.0 시작
    - → 피라미드 조직이 납작해 짐. 현장 작업자에게 더 많은 권한 부여
    - → Mass customization with mass production cost
  - 4) SAP 본사
  - 5) KIST 독일
  - 6) DFKI → 2005년 Smart Factory 제안
- ◎ 닮은 점과 다른 점
  - 공장자동화 : e-manufacturing vs. Smart Factory
- \* 아헨 공대에 2조4천억원 규모의 비용으로 건물을 지어 업체가 들어서고 있음
- \* 현태민 전북테크노파크 단장
- 3. 토론
- ◎ 김종도 (ISTN 사장), 이광재(SAP Korea 전무), 전현철(NIPA ID산업진흥팀 연구위원), 정연규(그립대표),
- (김종도) SAP의 솔루션을 기업에서 적용할 때 컨설팅과 운영 지원
- (전현철) 독일 참관단 참여
- (정연규) 홈IoT, 센서기반 네트워크 공급 개발 업체
- (이광재)
- (박창규 건대 교수) 섬유패션과 산업혁명4.0을 바라봐야 한다.
- (강창수 파웰 대표) SAP에서 센서모니터링(축구선수에 부착된)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.